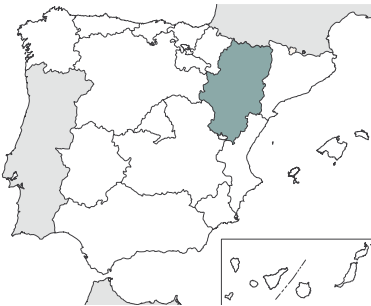




## 아라곤—새로운 스페인과 만나다

아라곤은 이베리아 반도 북동부에 위치한 자치주입니다. 우에스카, 사라고사, 테루엘 3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면적은 47,719km², 인구는 약 130만 명입니다.

아라곤의 최대 특징은 교통의 요지로서 발전해 온 역사입니다. 북부 우에스카와 이어진 피레네산맥은 유럽으로 가는 교통로 역할을 하며, 중부 사라고사에 흐르는 에브로강은 스페인 북부의 주요 도시와 내륙부를 연결하고, 남부 테루엘에 펼쳐진 이베리아 산맥은 카스티야 지방과 지중해 연안을 잇는 중요한 중계지점으로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이 지역에는 이베리아인, 로마인, 서고트족,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기독교



교도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라곤 문화의 결정체인 로마네스크 건축군과 무데하르 건축군은 현재도 소중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경관도 아라곤의 볼거리입니다. 해발 3,000m급 봉우리가 모여 있는 피레네 산맥, 스텝 기후(초원 기후)인 사막, 수많은 풍요를 안겨주는 비옥한 평원, 깊은 숲,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 웅장한 계곡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식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밭에서 무럭무럭 자란 포도를 사용한 와인, 풍부한 목초를 먹고 자란 새끼 양, 햇볕을 잔뜩 쬐 과일, 건조한 토지에서 숙성된 하몬(생햄) 등, 대지의 은혜로움을 즐겨 보세요.

대자연 속에 전원 풍경과 중세의 모습이 고요히 머무르는 아라곤을 무대로, 새로운 스페인을 알아가는 여행을 떠나 보세요.



# 아라곤 자치주

우에스카·사라고사·테루엘



<https://www.turismodearagon.com/ko/>



## 우에스카 - 피레네 산맥과 로마네스크 건축물

아라곤 주 북부에 자리잡은 우에스카는 비옥한 평지부터 눈이 쌓인 산악 지대까지, 마법에 걸린 듯이 변화하는 경관을 지닌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강한 존재감을 내뿜는 곳이 피레네 산맥입니다. 위엄 있는 봉우리들과 만년 설, 야생동물,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숲, 작은 봄꽃들은 끝없는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수많은 계곡은 이러한 자연의 낙원입니다. 피레네의 전통 가옥과 전통 의상이 남아 있는 안소 계곡, 프랑스에서 송포르 고개를 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지나는 아라곤 계곡, 아름다운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테나 계곡, 손대지 않은 자연이 남아 있는 비엘사 계곡, 피레네 산맥에서 제일 높은 아네토 산의 기슭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베나스케 계곡.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오르데사-몬테 페르디도 국립공원은 하이킹과 트레킹의 메카로서 스페인 국내 및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중후한 석조 로마네스크 건축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우에스카의 주도인 우에스카 시의 산 페드로 엘 비에호 성당, 유럽 최고의 보존상태를 자랑하는 로아레 성, 바위산 속에 고요히 서 있는 산 후안 데 라 페냐 수도원, 산티아고 순례길의 중요한 중계 지점이자 아라곤 왕국의 고도인 하카의 대성당과 주교구 미술관 등, 북부 스페인만의 소박하고 심오한 건축물을 감상해 보세요.

드문드문 흩어진 아름다운 마을에서는 걸어나는 편을 추천합니다. 에메랄드 그린 빛의 베로 강으로 둘러싸인 자그만 언덕 위에 지어져 이슬람 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알케사르, 피레네 산맥을 배경으로 자리한 중세 도시 아인사, 아라곤 왕국의 첫 왕도 하카 등, 느긋하게 걸으면서 박물관 같은 위엄을 지닌 소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몬카요 산



알하페리아 궁전



아라곤의 세계 양 요리



사라고사 시의 바르거리



라 세오 대성당

## 테루엘 - 중세의 모습과 무데하르 양식

아라곤 남부에 위치한 테루엘은 광활한 평지와 풍요로운 자연 경관을 지닌 이베리아 산맥이 펼쳐진 소박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주도인 테루엘 시는 투리아 강을 따라 늘어서 있으며, 아름다운 구시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리의 중심부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토리코 광장이 펼쳐지며, 테루엘의 상징인 황소 상과 모더니즘 건축 양식이 눈길을 끕니다. 좁은 골목을 걸으면 중세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테루엘의 연인들'의 묘와 무데하르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테루엘 시에는 산타 마리아 대성당, 산 마르틴 탑, 엘 살바도르 탑, 산 페드로 성당 등 4가지 무데하르 건축물이 있으며, 「아라곤 무데하르 건축군」의 선두주자로서 198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벽돌탑에 달린 아름다운 도자기 장식, 저녁노을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기하학 문양의 돌을새김, 기품이 느껴지는 반원 아치와 첨탑 아치를 감상하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했던 역사의 모습을 따라가 보세요.

테루엘 시에서 잠시 발을 돌려서 알바라신이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구시가지의 둘러싼 성벽, 적갈색이 특징적인 집들, 돌 포장길, 성터는 여행자들을 먼 옛날로 끌어들이는 매력입니다. 알바라신의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있는 산은 자연 환경이 풍부하며, 산 속의 로데노 소나무 숲에서 선사시대 벽화를 볼 수 있는 하이킹 코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발데로브레스와 루비엘로스 데 모라에서는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마을 산책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재료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명칭을 인증받은 테루엘의 하몬과 칼란다의 복숭아, 바호 아라곤의 올리브유를 비롯해, 알바라신의 포르치니 버섯, 사리온의 트러플 등, 계절의 맛을 즐겨 보세요.



피레네 산맥



우에스카 시



로아레 성



테나 계곡



프레피레네 산맥

## 사라고사 - 역사의 교차점

아라곤 중부에 위치한 사라고사는 예로부터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여, 스페인과 유럽을 이어 준 역사의 교차점입니다.

사라고사의 주도 사라고사 시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빌바오, 톨루즈의 각 주요 도시와 300km 권내에 있어 북 스페인 제일의 교통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카이사라우스타, 이슬람교도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사라고사 왕국의 수도, 기독교인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아라곤 왕국의 수도였으며, 항상 아라곤의 중심 도시로서 번영해 왔습니다.

사라고사 시내에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면 시간을 되돌린 듯한 아름다운 경관과 만납니다. 목욕탕과 극장 등 로마 시대의 유적, 이슬람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알하페리아 궁전(유네스코 세계 유산), 로마네스크 양식과 무데하르 양식이 혼재된 라 세오 대성당

(유네스코 세계 유산), 필라르 성모 대성당, 사라고사 출신 화가 고야의 작품이 모여 있는 미술관 등, 도보로 아라곤의 역사를 더듬어 갈 수 있는 귀중한 거리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구시가지의 바르(bar, 서서 마시는 선술집) 거리가 활기를 띠입니다. 현지인과 나란히 앉아 타파스를 맛보는 바르 투어를 떠나 보세요.

사라고사 시 주변에서는 아름다운 전원 마을과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웅장한 성벽이 남아 있는 다로카, 12세기 최고의 스페인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물로 불리는 성당이 남아 있는 운카스티요, 카톨릭 공동왕 페르난도 2세의 탄생지인 소스 델 레이 카롤리코는 찬찬히 관망하고 싶어지는 마을입니다. 고딕 양식, 무데하르 양식, 르네상스 양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대성당이 유명한 타라스나와 아름다운 폭포 여러 곳을 즐기면서 산책할 수 있는 모나스테리오 데 피에드라에도 발길을 옮겨 보는 것은 어떨까요?



토리코 광장



이사벨의 결혼식



발데로브레스



테루엘 하몬



테루엘 대성당